

numbers 제 70호



주요 내용

2020. 11.06

1. 이번 주 주제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식']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2.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10월의 마지막 주인 지난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간이었다. 중세 교회의 부패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2017년 500주년을 거쳐 벌써 503주년이 되었다. 2017년 500주년 때 한국 교회는 연초부터 많은 세미나와 행사를 통해 한국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양적, 질적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아젠다와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다. 절대 다수(94%)의 개신교인이 교회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걸 보면, 향후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지향점으로 삼아도 될 듯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70호는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의식'이라는 주제로 개신교인들과 목회자들의 '교회 공공성'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한국 교회에 원하는게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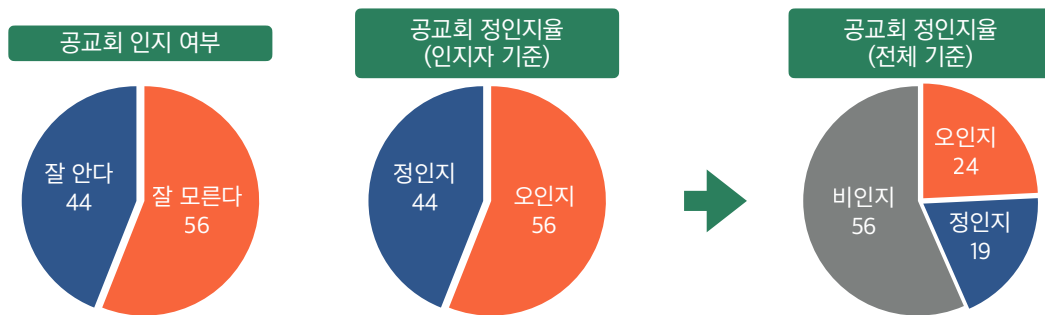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 개신교인들에게 공교회 인지도를 물어본 결과, 44%의 개신교인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실제 공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주관식으로 응답받아 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개신교인 5명 중 1명 정도 (19%)만이 '공교회'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지향점으로 공교회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



*자료출처 : 국민일보/국민일보목회자포럼,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공교회 인식 조사', 2019.03.06.(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 목회자 2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01.02.-10) (국민일보, 2019.03.06., "성도-목회자 '공교회 지향해야 공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558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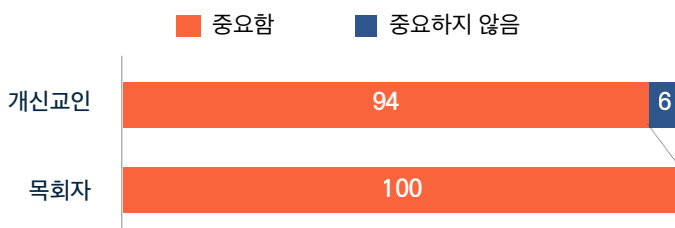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중요하다' '개신교인' 94%, '목회자' 100%

- 응답자들에게 공교회의 정의를 알려준 후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하였는데, '개신교인'의 94%가, '목회자'의 100%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의 중요성(개신교인 vs 목회자)

(%)



*자료출처 : 국민일보/국민일보목회자포럼,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공교회 인식 조사', 2019.03.06.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 목회자 2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01.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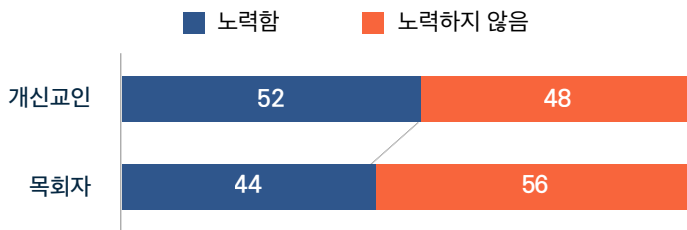
설문지 상에서 제시한 공교회 정의

'공교회는 개교회주의의 반대 의미로서, 교회가 교회 밖, 즉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인식하고 자기 교회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 한국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노력하고 있다’ ‘개신교인’ 52%, ‘목회자’ 44%

- 한국 교회가 공교회적 역할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에 대해 ‘개신교인’ 52%, ‘목회자’ 44%로 각각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만 한국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함
- 한국 교회가 공교회적 역할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개신교인이 목회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한국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에 대한 노력(개신교인 vs 목회자) (%)



*자료출처 : 국민일보/국민일보목회자포럼,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공교회 의식 조사', 2019.03.06.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 목회자 2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01.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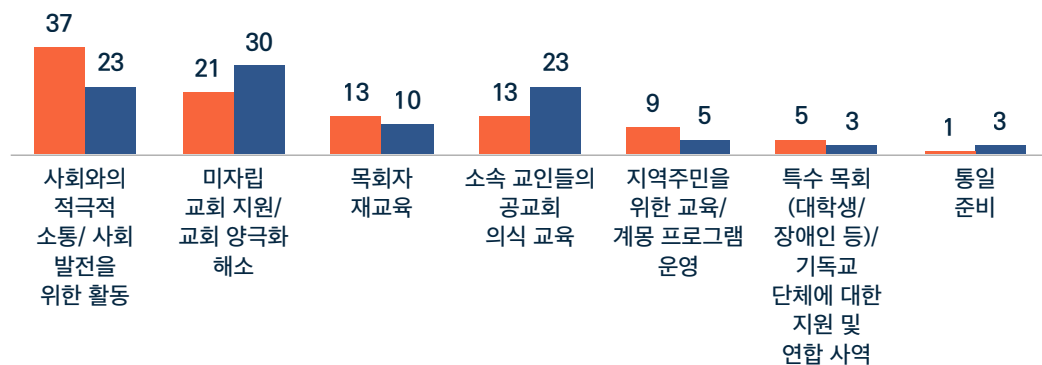
3



한국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대형 교회가 해야 할 일, - 개신교인 :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 목회자 : ‘미자립 교회 지원’, ‘소속 교인들 공교회 의식 교육’

- 한국 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대형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과 목회자 간 인식이 다소 상이했는데, 개신교인은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37%)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목회자는 ‘미자립 교회 지원’(30%)과 ‘소속교인들의 공교회 의식 교육’(23%)을 높게 응답하여, 일반 성도는 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목회자는 한국 교회 내부 측면에서 문제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개신교인들의 공교회 정인지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향후 공교회성을 지향점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개 교회별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공교회 의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한국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대형 교회가 해야 할 일(개신교인 vs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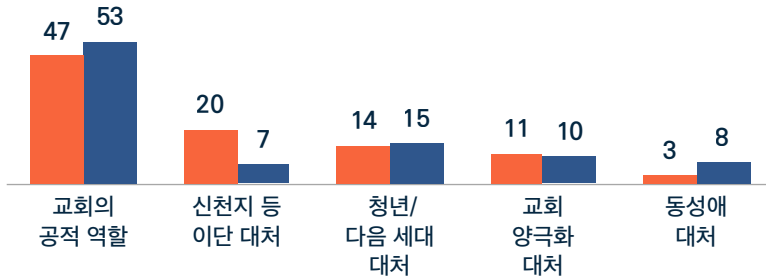


*자료출처 : 국민일보/국민일보목회자포럼,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공교회 의식 조사', 2019.03.06.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 목회자 2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01.02.~10)

● 한국 교회 연합 사역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위, ‘교회의 공적 역할’

- 한국 교회 연합 사역으로 추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를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 ‘목회자’ 두 그룹 모두 ‘교회의 공적 역할’을 1위로 응답함(개신교인 47%, 목회자 53%)

[그림] 한국 교회 연합 사역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적 과제(상위 5위, 개신교인 vs 목회자) (%)



*자료출처 : 국민일보/국민일보목회자포럼,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공교회 의식 조사', 2019.03.06.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 목회자 2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01.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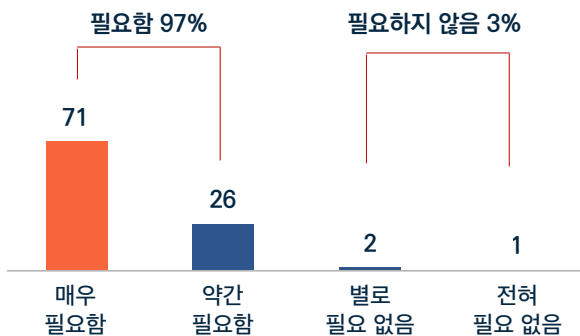
4



개신교인의 절대 다수(97%),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밖 삶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인식!

- 개신교인들에게 교회가 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질문하였는데, 절대다수(97%)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식에 대해 교회로부터 배우고 싶은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교회 밖 삶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필요성(개신교인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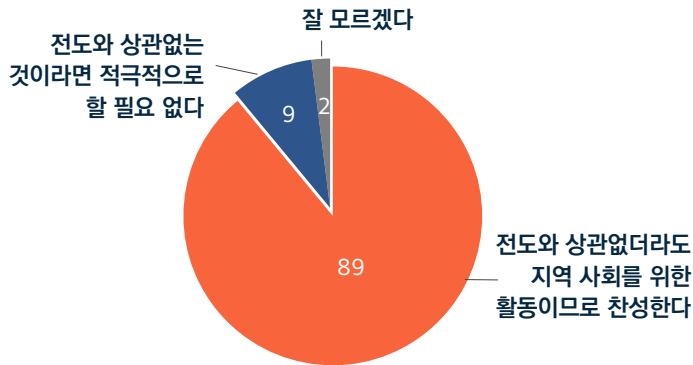


*자료출처 : 국민일보/국민일보목회자포럼,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공교회 의식 조사', 2019.03.06.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 목회자 2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01.02.~10)

● 개신교인 10명 중 9명, 교회의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찬성한다'

- 직접적인 전도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의 절대 다수(89%)가 '전도와 상관없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함

[그림] 전도와 상관 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개신교인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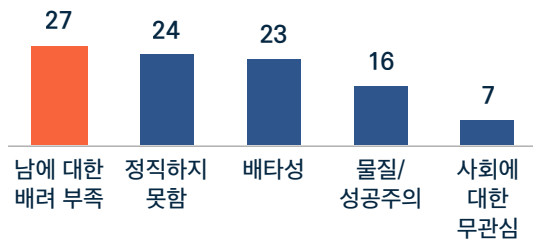
*자료출처 : 국민일보/국민일보목회자포럼, '개신교인 및 목회자 대상 공교회 의식 조사, 2019.03.06.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800명, 목회자 2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01.02.~10)

5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개신교인의 모습 1위, '남에 대한 배려'

- 우리 국민에게 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남에 대한 배려 부족' 27%, '정직하지 못함' 24%, '배타성' 23% 등의 순으로, 높은 도덕성과 성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일반 국민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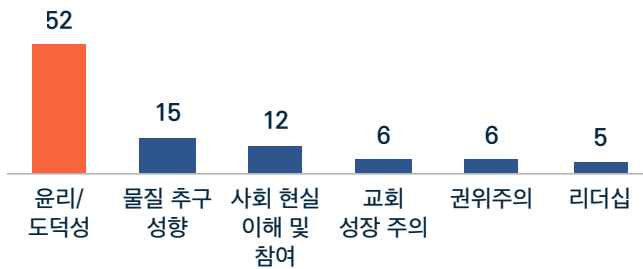


*자료출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결과 보고서, 2020.02.07.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1.09.~11)

●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개신교 목사의 모습 1위, ‘윤리/도덕성’

- 개신교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윤리/도덕성’이 압도적으로 1위로 응답돼, 한국사회의 영향력있는 사회적 주체인 개신교의 리더로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성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개신교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일반 국민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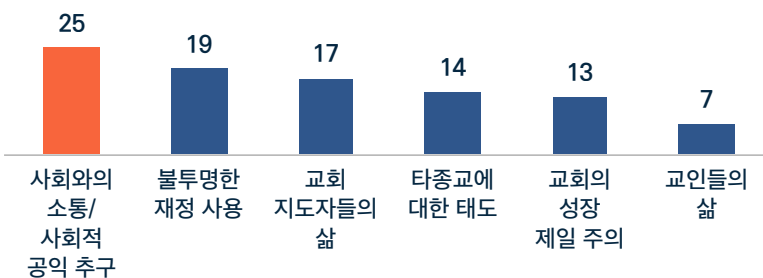


*자료출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결과 보고서, 2020.02.07.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1.09.-11)

● 우리 국민,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소통/사회적 공익 추구해야 한다!”

- 지난 8월 예정합동 총회에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여 최근 발표(11월 3일)했는데, 그 결과 중 개신교가 더욱 신뢰 받기 위한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와의 소통/사회적 공익 추구’가 1위로 응답돼, 일반 국민들은 한국 교회가 공교회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개신교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반 국민 대상) (%)



*자료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기독교언론 8개사, WITH 코로나19 시대 한국 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 II



시사점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아젠다를 심각하게 던진 것이다. 지난주 종교개혁(503주년) 주간을 맞아, 한국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기회가 된 것 같다.

왜 교회가 사회적 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할까?

과거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에서는 교회 밖의 '세상'은 본질적으로 더럽고 악한 곳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므로 이곳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교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낳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 이미지를 획득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교회가 교회만을 생각하면 안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제 교회는 복음 전파, 즉 전도와 선교만 신경을 쓰거나 성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뿐 아니라, 작게는 지역 사회에서 개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넓게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비쳐지는지를 신경을 써야 한다. 전략적으로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요인이 탈종교화시대에서 전도와 선교의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언론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식품업계의 후발주자였던 오뚜기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좋은 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도 있었지만, 비정규직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 수천억 원대 상속세를 내는 윤리적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이 좋은 이미지는 실제 매출과 연결되어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세상의 기업도 이렇진데 하물며 교회도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복음 전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 밝혔듯이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교회가 지금보다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할하길 원하고 있고, 자기 교회 중심성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보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데이터에서 잡히고 있다. 교회의 연합 사업도 공적 역할에 방향을 두고 하길 원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다른 사역 만큼이나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까지 왔다.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좇는 교회라면 외면할 것이다. 교회의 집합체인 교단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 성도 개인은 자기 이웃을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교회를 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 현재 개신교인들의 5명 중 1명 정도만 공교회에 대해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선 공교회에 대한 평신도 교육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심을 수시로 체크하는 조사 통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민심은 널뛰기이다. 자극에 따라 민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OECD Health Statistics 2020]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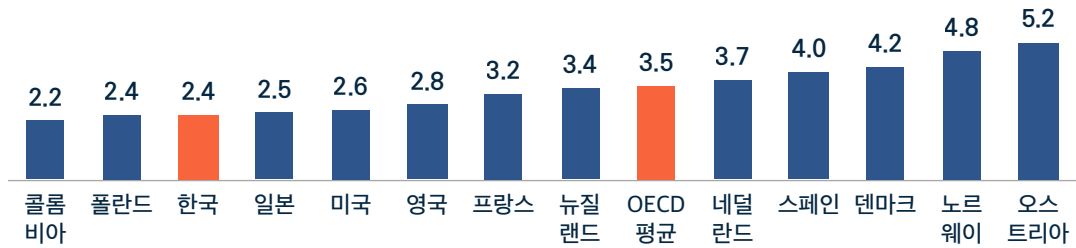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

- 올해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분야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위로 거의 최하위권임. 이는 OECD 평균인 3.5명보다 1.1명이 적은 수치임
-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가장 적은 국가는 콜롬비아임

[그림] OECD 주요국 임상 의사 수(2018년) (인구 천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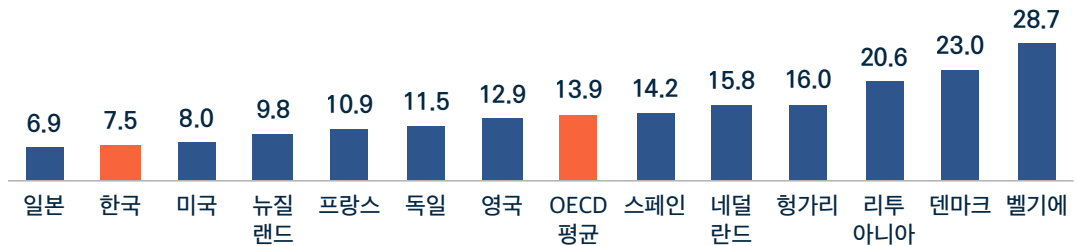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9.15.

● 우리나라 의학 계열 졸업자 수, 인구 10만 명당 7.5명으로 OECD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임

- 한국의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5명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7.7명에서 오히려 0.2명이 감소함
- 이는 OECD 평균인 13.9명보다 6.4명이 적은 수치임
- OECD 순위로는 전체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임

[그림] OECD 주요국 의학 계열 졸업자 수(2018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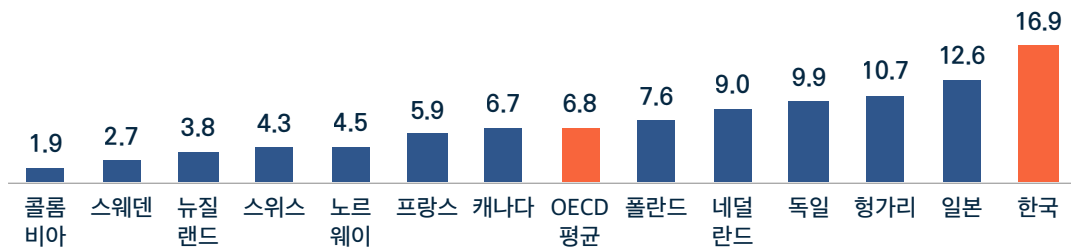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9.15.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연간 16.9회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6.9회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데, 2013년 14.6회에서 2018년 2.3회 더 증가함
- 이는 OECD 평균인 6.8회보다 10.1회 많음
-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임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의대 졸업생 수가 현재 상태라면 의사 수가 더 증가되기 어렵고, 따라서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도 줄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림] OECD 주요국 1인당 연간 의사 외래 진료 횟수(2018년) (회)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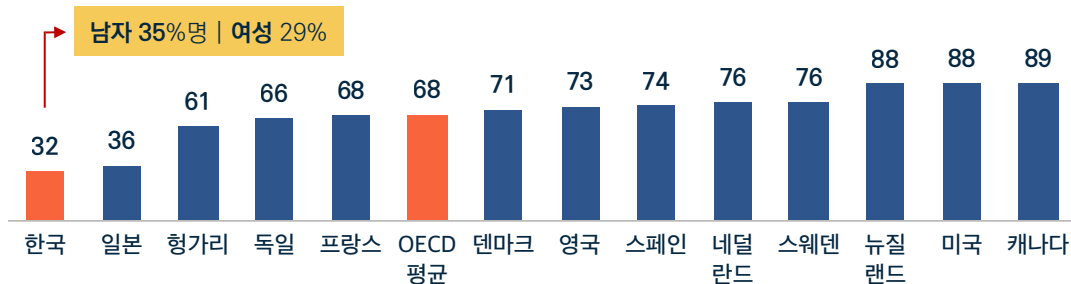
2



주관적 건강 상태, 한국, OECD 국가 중 꼴찌!

-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 중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35개국 중 최하위(35위)를 기록함
- 이는 OECD 평균 68%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OECD 국가 중 본인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나라는 캐나다(89%)임
-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남자 35%, 여자 29%로 남자가 더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OECD 주요국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 응답률(20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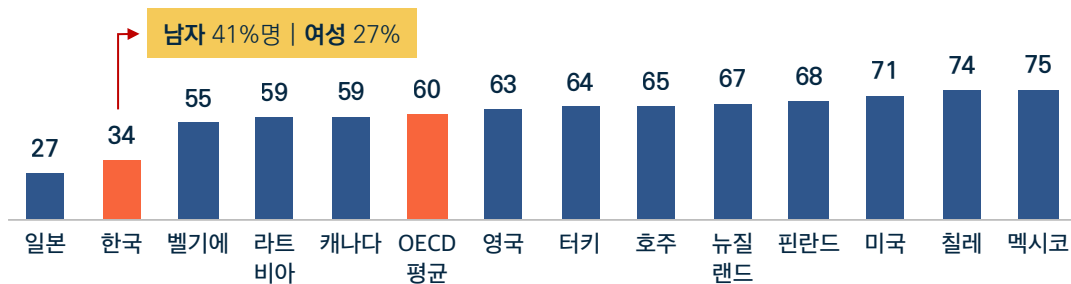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9.15.

● 그러나 비만율은 34%로 OECD 평균 60%보다 훨씬 낮아!

-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4%로 OECD 평균 (60%) 보다 훨씬 낮음
- 한국인의 비만율은 2013년 32%에서 2018년 34%로 2%p 증가함
- OECD 국가 중 비만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임
- 한국인의 비만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41%, 여성 27%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는데, 남녀 모두 OECD 평균(남성 64%, 여성 57%)보다 낮음

[그림] OECD 주요국의 비만율(2018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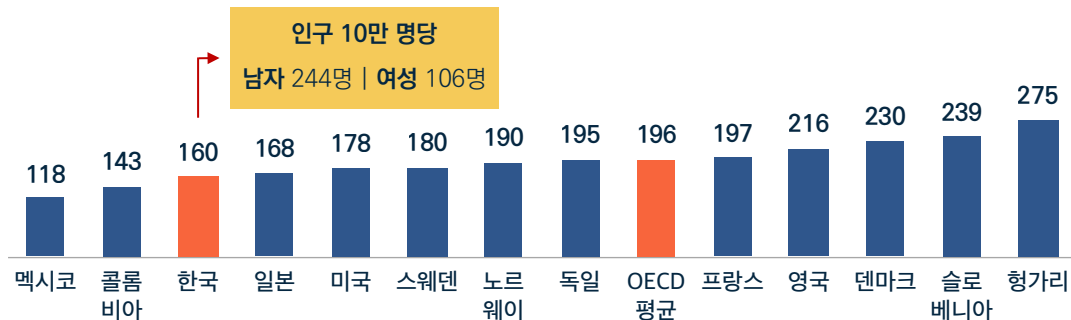
3



우리나라 국민의 암에 의한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60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음

- 우리나라 국민의 암에 의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0명으로 OECD 36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적는데, 2012년 183명에서 23명 감소함
- 이는 OECD 평균 196명 보다 36명이 적은 수치로 암사망자가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지는 않은 상황임
- 암 사망률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244명, 여성은 106명으로 남성이 2.3배 높음
-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임

[그림] OECD 주요국의 암에 의한 사망률(2017년)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9.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19 / 사회 일반

[한국인, 독감백신 접종률, 세계 최상위권](#)

동아일보_2020.11.04.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깊어지는 코로나禍 교육 격차 고민](#)

조선일보_2020.11.04.

[언택트 효과... 카카오킴즈 영업이익 170% '쾅충'](#)

동아일보_2020.11.05.

["국민 88%, 집회·시위 제한은 '방역 위한 필수조치' 인식"](#)

연합뉴스_2020.11.04.

트렌드

[급증한 20.30대 여성... 그들은 왜 골프장으로 가나](#)

조선일보_2020.10.31.

[열흘 만에 900만명 참여... 젊은 세대는 왜 심리 테스트에 열광할까](#)

조선일보_2020.10.31.

[코로나가 삼킨 퇴근후 한잔, '10%의 경제' 사라졌다](#)

조선일보_2020.10.31.

경제

[코로나19 이후 업종별 소비심리 변화...소비자 잡을 키워드는 '디지털·집콕'](#)

매일경제_2020.11.05.

[특수고용·프리랜서 월소득 -69%, 코로나 충격 극심](#)

중앙일보_2020.11.03.

[평판의 힘...오투기 2년 연속 1위](#)

한국경제_2020.11.01.

큐레이션

[가족 같은 회사가 혁신? 어렵없는 소리!](#)

매일경제_2020.11.05.

["이름이 가물가물... 나 혹시 치매 아닐까?" 치매 아닙니다](#)

조선일보_2020.11.03.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1-33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3-58호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59-69호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제 69호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과천제일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신규후원자 | 김관상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